

일본 수출규제/한일 관계 동향(2020.7.4.~2020.7.10)

1. WTO 제소 관련

□ 한국 정부는 7월 6일 실시된 WTO 회원국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는 모두 무효하다고 주장¹⁾

- 7월 6일부터 WTO 회원국들은 일본의 무역정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함.
- 여기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시한 수출규제로 인해 한일 간 무역 관계가 훼손되고, 한국 기업이 손해를 입었다고 한 뒤, “일본의 조치는 정당한 이유가 없고, 모두 무효하다”고 주장함.
-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안전보장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수출 건에 대해서는 허가하고 있으며, 공급망에 큰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.
- NHK는 이날 회의에서 WTO의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, 한국이 7월 29일 열리는 분쟁해결 관련 회의에서 패널 설치를 다시 요구하면,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전망함.

□ 한편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의 정당성을 주장²⁾

- 일본 정부는 7월 8일 WTO에서 개최된 일본의 무역정책에 관한 심사회에서 수출규제와 관련하여 “한국의 수출관리체제와 운용의 취약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실시했다”고 한국 측 주장에 반박함.
- 또한 일본은 군사전용 우려가 있는 물자, 기술과 관련하여 적절한 수출관리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.

1) 「韓国 日本の輸出管理「すべてが無効だ」WTOで発言」, 「NHK NEWS WEB」, (2020. 7. 7).

2) 「日本、WTOで「韓国の輸出管理懸念」」, 「産経新聞」, (2020. 7. 9).